

교회 목록

신랄한 예매
친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진행
(화~주일, 4:50)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바울의 소망

11:24~27 ; 딤후 4:10,16). 그럼에도 바울은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였다(딤후 4:7).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만 충실할 것을 권고하였다. 바울은 추운 겨울의 사역에만 충실하였다. 동역자를 생각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등 오직 십자가의 사역에만 충실하였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았다. 죽음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으로 설명하였다(딤후 4:6). 바울의 마지막 투쟁은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죽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을 품는 자에게 죽음은 단지 자신이 처하여 있는 장사나 모습이 변하는 것 정도만 여겨진다. 인간의 삶이야말로 수많은 떠남으로 계속 이어지는 여정이다. 그러나 오직 죽음은 다른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떠남이 아니고 마지막 떠남이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철쭉같이 캄캄하고 무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험하게 달리는 말처럼 모든 장애물을 뛰어 넘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원한 집으로 입성할 수도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긴 여정을 마치고 무한한 사랑의 구주와 함께 마지막 떠남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공포나 두려움이 전혀 없이 스데반처럼 죽음 중에 기다렸던 영원한 집으로의 입성이다(고후 5:1~2).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고생과 수고는 다 지나간 광명한 천국으로 가는 기쁨의 간증이다(계 14:13).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지쳤다."라는 바울의 고백에는 지나 온 그의 삶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악마의 세력, 세상의 무서운 험과 항상 투쟁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경주하였다(엡 6:11~13,16).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보물인 믿음을 잘 간수하였다가 그 주인인 예수님께 돌려 드릴 준비가 되었다(딤후 1:14). 그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딤후 1:12). 오직 하나님께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되듯이 사순절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2월 25일)부터 부활절(4월 12일) 전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1세기에 사순절은 단 40시간이었습니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40시간 있었던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는 6일간이 되었다가, 1년 365일의 십일조인 36일로 늘어났고, 731년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 때 4일이 추가되어 이후 40일로 정해졌습니다.

4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마 4:2)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였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사를 열을 이끌었습니다(출 24:18).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간 금식(왕상 19:8)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민 14:33)받으셔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화해와 부활에 대한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되(화~주일, 04:50), 해당 교구식자들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외례에 따른 사순절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5부예매 시에 2009년 제2차 성탄식이 있습니다

만 때여 믿음의 삶을 실천하였다(눅 19:16). 분명한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두려울 것이 없었다(행 20:24). 이제 그가 그토록 그리던 소망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간에 그는 고요한 깊은 옥중에서 찬미하고 있다. 슬픔과 실수로 낙심을 거듭했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 앞에 한 소망의 줄기를 보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총의 소망은 오직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으며 참된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있다.

믿는 우리는 현실과 영원의 세계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영원한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소망뿐이다. 이때에 붙어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삶의 절정은 장래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이다(딤후 4:8). 지금까지 걸어 온 투쟁과 경주를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는 면류관은 참으로 우리의 면류관임이 틀림 없다. 승리의 면류관은 신약 전체를 통하여 이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다(약 1:12 ; 계 2:10). 의와 생명의 면류관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다(골 1:16~17).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빌 3:8~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면류관을 쓰는 '그 날'과 순교를 당하는 '그 때'를 구별하였다. 그는 죽음과 동시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무덤 너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자들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 날'에는 더 큰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가지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유:20 ; 빌 1:21).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눈을 다시 볼 때에 우리는 그 자비하신 얼굴과 음성을 영원히 듣게 된다. 우리는 손을 들어 영광의 면류관을 더듬게 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 면류관을 받아 쓴 승리자들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CHRIST'S TEMPTATION

*⁽¹⁾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roun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²⁾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Luke 4:1~2)*

Your life and mine are constantly limited and frustrated by the effect of original sin. The entire human race was cursed ever since the first woman failed her temptation from the devil in the Garden of Eden. God told Adam and Eve,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shall surely die"(Gen. 2:17). The devil told Eve, "You surely will not die!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Gen. 3:4~5). Adam and Eve disobeyed God's word 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Humans were created by God from dust, and now because of Adam and Eve's disobedience all humans return to dust. There is no exception! The first temptation led to unimaginable catastrophe and will continue to plague us until the end of the world. God is always truthful, and the devil is always deceitful. God's ways always lead to life, and the devil's ways always lead to death. In this world, all humans face temptation, but Christians can have victory over temptation by following Christ. During this second Sunday in Lent, let us start spiritually preparing our hearts and minds for appreciating and loving God's wonderful grace.

Jesus Christ overcame the devil's temptations. At the beginning of His public life, the devil came to Jesus over a period of forty days in the wilderness. Jesus took on the devil who had tortured the human race for so long and defeated him in their very first encounter. Jesus stood upon the Word of God, Scripture, in His victory over Satan. The Bible tells us that Satan acknowledged Jesus' power as the Son of God, and tempted Him in his hunger to turn a stone into some bread. Jesus respond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Lk. 4:4). As the prince of this world, Satan asked Jesus to worship him and he would give Him this world. Jesus responded,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Lk. 4:8). Finally, the Bible tells us that Satan asked Jesus to jump off the top of temple and prove that the angels would actually save Him. Jesus answered, "It is said,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Lk. 4:12). During this season of Lent, spend some time reading God's word.

Jesus Christ's temptation is a warning for believers. Our pride, self-indulgences, and presumptions need to go. As followers of Christ, we cannot rely upon our own power and authority. We need to reject our self-righteous and 'my-way' of thinking attitudes. Jesus rejected everything of His own power and just relied on God's word. 1John 2:15~17 remind us,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This is God's secret to victory here

and now. The devil only offers us temporary worldly blessings, desires, and successes. His tricky methods try to lead you away from God's word. With all the Satanic terrorism, lies, and moral devastation taking place during this 21st century, it is rather surprising that so many 21st century people don't attribute these works to him. Today's educated and entertainment driven populace don't even think about Satan. Christians need to be honest and admit that even if they have never done any purposeful evil, they have gone along with or kept silent when they should have protested against it. This is an uncomfortable thought, but remember that not even the Apostles stood by their beloved Master during His humiliation and suffering. During this season of Lent, spend time repenting in your prayers before God.

Jesus Christ faced His temptation full of the Holy Spirit. Every single word that Jesus spoke to the devil came from Him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God is always with you and will always give you direction, so that you can be in truth. He has given us His Word, which is the word of life. He wants you to stand on the gospel. Jesus promised,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Jn. 14:26). When trouble and temptation come, don't worry and don't be scared. Just humbly kneel down and ask for God's grace. The Holy Spirit will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He will tell you what is from darkness and what is from grace. He will tell you what is the word of God and what is not. He will help you avoid the devil and understand God's truth concerning what is good. Moreover, He will give you the power of victory over the devil. During this season of Lent, spend time carefully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and giving up yourself to His ways.

My dear friend, are you a follower of Jesus Christ? Jesus says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Mt. 16:24). If you obey His call, then you will have eternal victory, both now over Satan and in heaven. The devil's temptations toward you this Lent may be strong, but God is stronger. You have the choice to go the devil's way or the grace of God's way. Read your Bible, repent of your wrongdoings, and listen to the Holy Spirit. Please rely on God but not your own power. James 1:27 says, "Pure and undefiled religion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is this: to visit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unstained by the world." Make this second Sunday in Lent really mean something. Let it be a time of stripping down to essentials, and focusing on your relationship with God. When the time comes (and judgment time is coming), if you have given up yourself and listened to the Holy Spirit, then Jesus will say to you, "Come,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Mt. 25:34). Amen. ■

그리스도의 시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누가복음 4:1~2)**



김성관 목사

여러분과 저의 삶은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끊임없이 제한받고 좌절당합니다. 온 인류는 첫 번째 여인이 에덴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7).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창 3:4~5).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흠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흠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는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마귀의 길은 항상 죽음으로 이끕니다. 세상을 살아가 때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지내신 후에 마귀가 접근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를 고통케 한 마귀를 첫 대결에서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탄을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그가 주리셨을 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눅 4:4). 이 세상의 지배자로서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눅 4:8).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정말로 그를 구해준는지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눅 4:12).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의 자존심, 방종, 주제 넘은 태도는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독선적인 태도와 ‘내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15~17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단지 일시적인

세상의 축복과 욕망, 성공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의 교활한 속임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21세기에 만연되어 있는 광적인 폭력, 속임수, 도덕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배후에 있는 사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교양이 있고 오락문화에 종속된 오늘날의 대중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즐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생각하기 거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니 동안 제자들마저도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한 모든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청중하듯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에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속한 것과 은총에 속한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마귀를 피하고 선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을 시험해 오는 사탄의 공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27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들을 지체 세속에 물 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까지 숨김없이 드러내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날(다가를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마 25:34). 아멘. ■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의 기도



후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말씀의 잔치인 청지기훈련을 사모하며 1차 청지기 훈련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기대되었다. 그리스도의 기도란 제목은 기도에 감동한 나에게서는 중요한 기회였다. 몇 주 전부터 교구에서 구역별로 금식하며 준비해 오던 청지기훈련이다. 지역 식구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기를 원했다. 교회에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많은 연락이 오다 보니 그때로는 연락 오는 것이 불편한 식구들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말씀의 유익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았다.

청지기훈련 당일 차량을 동원하여 아이들과 어른신들을 모시고 교회로 향하는데 감사할 뿐이다. 교회에 도착하니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있다. 본당2층 교구차에는 많은 교구식구들이 앉아계셨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교구식구들과 초청받아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았다. 위임목사님의 헌팅은 설교의 초점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시편 기자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다. 그 동안 사람이, 물질이, 직장이, 조건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살았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집어낸 나무 한 조각과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멸할 수 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왜 매 순간 느끼지 못했을까? 불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시라"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몰랐을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다. 나는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을 실천해야 할 그 시간에 믿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웠다. 이 기도는 이제 내 기도가 되었다. 내 자신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 앞에 말라가듯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나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를 일컬어 담고 마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절망할 것이다. 위선이라는 겉대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날마다 체험하며 매 순간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한다.

최영민(집사, 10교구)

후나의 기도

매일 기도를 한다. 눈뜨자마자, 식사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때론 모임에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소용돌이를 있고, 흔자 하는 놋두리처럼 주춤주춤 때가 많아졌다. 또 대표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그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

다. 더구나 이번 2009년 1차 청지기훈련에 대해 큰 기대나 준비 없이 주제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참석하였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했지나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할 수 없는 결손을 담은 채 극심한 통곡과 같은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었던 주님께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나의 기도가 떠올랐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바로 내 기도의 모습이었다.

나의 기도는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되었고 가식과 교만으로 가득한 기도였다. 한마디로 악인의 기도였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던 주님께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나는 한 없이 악한 죄인임이,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나의 믿을 약함을 또 다시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김성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왔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웠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과 아들들이 떠올랐다. 순간순간 도전하는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음을 생각했다. 오직 주님의 통곡소리가 거저 간 그 길이 내가 얻되려 기도해야 될 장소이고 정말 예수나처럼 겸손하고 간절히 "나를 구원하시라.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이 깨달아졌다.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아 함께 있으며 하나님 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나..."

눈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더욱 고통정체가 심해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 했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참지 못하고 무릎꿇었지만 이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김우준(집사, 정년29)

후아멘!

다른 어떤 때보다 "아멘."을 많이 외쳤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나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가장 복된 날 중의 한 날이 분명히 20여년 동안의 눈물과 한숨이 보상을 받는 날이기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통일교의 열성분자였다. 그 이후 "가정을 버리고 충성하라."는 성령에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 그만 두셨다고 한다. 그 잘못된 믿음의 뿌리조로 인해 주님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기도를 시키시며 참으로 큰 인내를 요구하셨다. 1990년 2월 미국에 있던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온 목적은 아버지의 구원이었다. 돌아와 보

니 예전에 아파트를 팔아 꽤 전장이 밝다는 곳에 아버지 이점으로 집을 사 놓았는데 사업을 하였던 아버지는 대출을 내어 쓰시고 값지 못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기가 막혔다. 너무 괴로워하는 내게 남편이 다가와 "아버지의 구원과 바꾸었다고 생각하라."는 말에 그제 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때부터 난 울보가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내일의 기쁨을 미리 생각하며 눈물이 흐른다. 내일은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학습을 받는 날이다. 그것도 새가족부를 충실히 수료하고, 이 중헌교회에서... 아직도 난 인간의 해임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언제나 내 뜻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 "이 날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께, 그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아멘.

남준호(집사, 14교구)

후완전한 신뢰, 완전한 피난처

'그리스도의 기도'란 청지기훈련 주제를 보는 순간 기쁨과 기대가 함께 밀려왔다. 그러나 분주할 속에서 본문말씀을 읽어 보기의 순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도 모르며 청지기주간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멀리 있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그 친구 역시 요즘 깊은 기도와 회개와 사모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주님은 여전히 기도의 깊은 교재함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느꼈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주간 헌화>를 들고 앉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셨고 완전한 피난처로 삼으셨습니까.' 나는 그 문구에서 눈물 뿜 수 있었고 내 속에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수추려왔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피난처' 글씨, 뒤리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삼으로 이어진 순종함이 계셨다.'라는 말이 새롭게 나를 감동시켰다.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또 이어주실 그 말씀을 기다리며 청지기훈련에 들어갔다. 준비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울렸고 이어 예배가 선포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전한 연합은 기도와 순종 중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체될까나 명쾌하지 않더라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며 주님의 몸짓이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이 그리스도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이끄심을 감사하며 그날 그날... 머리를 기울고 기도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고개를 들고 삶의 현경으로 나가기는 그 시간이 더 집중해야 할 기도시간이라는 결 또 한번 마음에 새기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와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알고 또한 믿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했으니 이 고백처럼 나 또한 환경의 풍속함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참 초조주를 바라보며 완전한 신뢰, 완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너무도 잘 알기에 또한 두렵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에...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 중 한 것 같은 것은 "주님, 절대로 절 놓지 마세요. 저 야시 없어요."이다. 청지기훈련이 끝날 때 주님은 내게 찬양의 기도를 붙여 주셨다. "그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를 붙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여 주십시오."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다.

이혜경(집사, 3교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6:1)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방학 때 청지기훈련을 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매년 학교수업이 늦게 끝나서 교회에 도착하면 이미 설교가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힘들게 설교를 듣고 알부본들 듣지 못해서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예배가 끝난 후 기억나는 것이 하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청지기훈련 만큼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가리라고 다짐했다. 지난 번에 받았던 청지기 훈련보다 더욱 기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임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시 46:1). 나는 매일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개도 했다. "이제 예수께서 대방하여 이르시도 여저여 내 믿음이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마 15:28)고 한 말의 어머니처럼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롬 7:15).

때때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마의 팔에 빠져 감정에 치우쳐 행동했었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행하여야겠다. 그3이라는 시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격려와 군살을 버리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믿음에 성장할 때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 되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전동섭(고동부)

✎2시간이 금방 지나 버렸다

청지기훈련에 처음으로 참석하기가 마음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친구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청지기훈련은 아침 7시가 아니고 저녁 7시라고 한다. 다시 잠을 자고 오후 4시에 교회에 가니 한 자매님이 벌써 와서 기다리는데 교회에 같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같이 저녁 먹고 교회로 갔다. 처음에는 자리에 여유가 있었으나 내 옆에 한 사람이 앉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자고 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끔찍할 수가 없었다. 나는 교회에 다닌 지 3년이 넘었지만 금요일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모습은 처음 보았다. 자리는 불편했지만 수화를 통해는 은혜로운 말씀에 2시간이 금방 지나 버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의 시간에도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으나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날들이 부끄럽기만 하고, 간혹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한 일이 부끄러웠다.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기도였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낯시 간다고 교회에 결석했던 일과 친구와 싸웠던 일들,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바치

지 못한 일들이 자주 생각났다.

이제 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길 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피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김종환(성도, 예배다부)

✎기도의 삶

청지기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어둡음이 닥치는 유혹들이 있다. 바로 확실히다. 유혹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부추키거나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선생님이 아침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 사실 바꾸어주신 것에도 청지기에는 참여할 생각이었다. 아직 시간적으로 또 시적으로 비관하고 힘든 때가 아닌데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함들 없이 청지기훈련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복이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기기를 준비 할 때, 성령이 충만하도록, 은혜 받도록 매일 기도 주님께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믿음은 기뻐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청지기훈련에 입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기도'였다. 찬송가에서 죄가 없이 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너무 부족한 기도를 했었고 그에 비해 내 죄는 너무 많았고 근심걱정도 많았다. 그렇게 부족한 나였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처럼 기도하라고 간구하고 소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동안 생애에 살면서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청지기훈련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낙담한 인간인 자라 금방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피뎌 흘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위임목사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해 본다.

김한민(중동2부)

✎와서 느꼈다!

이번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부터 금요찬양집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금요찬양집회에 가지고 싶지 않거나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안 간다고 고집부리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거의 날 이삼은 일마다 손이 끌려 강제로 나오시게 되었다. 첫 날 와서는 예 이리도 좋지만 지리가 옆에 앉아서 툭툭 치시는데도 눈 위에 바위가 올라왔는데도 내 몸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었을 때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싶었지만 마땅히 갈 때도 없고 나는 또 엄마한테 이끌려 다시 교회로 왔다. 교회에 와서 자매님이 있는데 엄마가 장로님께 인사를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내 머릿속엔 집

에 두고 온 게임이 생각이 나는 순간, 엄마가 장로님께 "우리 아이가 금요찬양집회에 오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여쭈었는데 장로님께서 나에게 던지는 한마디 "와서 느껴봐라."고 하였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웬지 모르게 그날은 위임목사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멋있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 속으로 웬지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화를 맞추어서 부르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종동2부 친구들이 선교를 간다 해서 웬지 나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사시는 분들을 위해 부르는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다.

그러는 가운데 2일이 2월 20일 금요일 청지기훈련을 하는 날 목사님의 말씀과 중간에 부르는 찬송들은 더욱 좋았다. 방학 중에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결본이 바로 청지기훈련이니까 생기가 되었다. 마지막에 부르면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은 십자가가 짐같이 고생이냐."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즐거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와서 느껴봐라"는 장로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았다.

너무나 행복했다. 앞으로는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하나님께만 나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행복하게 한다. "좋은 말씀 전해주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종진(중동2부)

✎예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내 자신도 그렇다.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자기 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도 또한 버릴 때가 많다. '도대체 왜 그럴까?'는 아직 성경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나 보다. 성령이 내지 예배드릴 때 펼쳐서 말씀만 읽고 찬송 몇 장 찬양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하게 책 읽는 것과 같다. 성경은 한 구절마다 뜻이 담겨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책이 재미있어지고 결국 성경책 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다.

기도 또한 같다.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 할 수 있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한 기도를 대충하고 끝내는 것은 사실 논조고 허풍처럼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원하는 것을 간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나는 어려움에 올 때만 내 기도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다. 예수님도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나는 조마한 어려움조차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고, 가장 믿음만하고, 의지할만한 곳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니 참 후회된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포박코파고 기도도 더 자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민준서(중동3부)

수요부예배-메시지(2009. 2. 25.)

이제라도

(오일 2:12~14)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발걸음은 회개다(율 2:12).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은총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교만과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죄인들이다(창 2:16~17).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결정된 자들이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보혈의 은총이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에게 내려졌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이미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죄짐으로 인하여 갇혀있을지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비로우신 주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자(렐 4:14).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율 2:14~17). 이제라도 돌아와 예수님이 친히 예비 해 두신 영원한 처소로 나아가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꼭 회개가 있어야 한다.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 회개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자를 회개다. 또한 우리교회에 필요한 것도 회개다. 경건한 신앙인격자, 아담답고 부흥하는 교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천국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벗어날 때 회개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우리의 삶과 교회는 온갖 우상들로 남치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은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오직 예수'가 아닌 예수를 비롯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많은 교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을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충만한 베드로의 외침을 듣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치 않지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람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나"(행 2:36~38).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행 4:12). 오직 예수뿐이다. 꼭 회개하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다. 부와 명예, 존경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씻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이다(창 2:16). 비록 좁고 험한길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율 2:13). 예수님은 인류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시며 대속물이다(딤후 2:4~6).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길과 분명히 다르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워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기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 9:14~15).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다(요 17:3).

어떠한 행실이 있었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삶의 진부가 되신다(율 2:14).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깝지 않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와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매번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복음을 위한 수고를 꺼린다. 대신 존경과 명예를 구하는 자리는 일부러 찾아다닌다. 이것이 최종으로 가득찬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한다(요 14:14~15).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마 16:24~26). 이처럼 믿음의 행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요 14:6). 그러나 간교한 영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오직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외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며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속지 말라!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걷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다(산 30:19~20). 그러나 두려워하지마라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회개하자. '내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자. 이제부터라도! 아멘.

마가복음 강해 60

* 더욱 필요사역가도전(새책 448페이지) 생생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라

(11:15-19)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 절기 때마다 흠자인 유대인들(디아스포라, Diaspora)은 원근 각처에서 모여 절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회합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었다(대하 3:3~4:15).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헤롯왕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었다. 문제는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이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었지만 성전 안에는 온갖 죄악들로 넘쳐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유대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허용하였다(마 17:24,27).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인간의 욕망들로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막 11:15). 그동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릇된 모든 것들을 뒤엎으신 뒤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남을 헐라하지 않으셨다(막 11:16).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수백 년간 묵인하며 허용한 전통이었던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타협이나 이해, 너그러운은 없었다. 당시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과격해 보였다. 왜냐하면 성전을 찾아온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살생을 말하며 서로 장사하고 거래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막 11:17)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과격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게 행하셨던 것이다(마 21:13; 눅 19:46).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

며 거짓 맹세하며 바일에게 분한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라니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렐 7:9~11).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막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다(막 1:22, 13:2, 14:58).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다.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오직 말만으로 가득해야 할 성전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다. 그런데도 그 누가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그 누가 보이도 타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울무이며 함정이다. 십자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자연스레 일어나는 죄악이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 우리의 자애에서 사라진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운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의 길을 향해 가게 된다. 진실로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반면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더욱 구체화시켰다(막 11:18).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멸망에 처할 자들의 반응이었다. 예수님은 그 방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막 11:19). 지금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논하며 예수님을 붙들고서 무엇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원하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십자가에 못 박은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기쁘신 그 모습으로 순종하자. 오직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아멘.

그 한 영혼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올랐다. 창세기에 쓰여 있는 구절들이 실감이 났다. 끝없이 펼쳐진 들녘, 저 멀리 보이는 산들, 후덥지근한 열기, 강물 위에 지어진 기둥들, 푸름으로 확 펼쳐진 논, 그곳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런 선교지의 하늘 아래 복음을 외치며 이쪽 저쪽을 돌아다녔다.

사역 3개월 어느 마을 한 집에 폐지와 놀고 있던 한 여자 아이가 눈에 띄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엄마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린 여자 아이는 나를 맑은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는 듯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내보이며,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현저어로 또박또박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다. 나의 현저어 실력은 현란없었지만 그 아이는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은 뛰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한 뒤 전도지를 주었다.

사역을 하는 내내 마음 속에 아이의 모습이 맴돌았다. 아침 경건회와 저녁 평가회 시간에 그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주님, 그 아이를 주님의 품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통해 이 마을과 이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가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소망을 기도한다.

임훈근(교사, 고동부 1팀)

계속해서 회개하였다

여러 차례 선교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선교는 더욱 나를 내려놓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팀원들의 이해와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팀장으로서 더욱 주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팀원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탓하였다. 자기 부인과 절대 항복의 영성신앙 과정에서 팀원 모두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고등학교 중심의 선교여서 시간적으로 촉박하였다. 팀 훈련횟수, 전도, CMTC, 봉사활동 등 선교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기에도 허덕여야 했다. 뒤돌아 볼 때에도 우리 팀이 선교에 필요한 심사를 통과하여 은혜로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선교지에서 나는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팀을 인도하려 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 계속해서 회개하였다. 정말 사역기간 내내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의지, 욕심을 내려놓고 백지상태로 첫 사역을 하는 심정으로 매시간 사역에 임했다. 그 결과 팀원들의 사역태도와 경건회, 평가회 등에서 현저히 달라진 모습을 대하게 되었다. 그 날 그 날 만났던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며 진지하게 전도하는 팀원들의 태도를 보며 큰 도전을 받아 나도 더욱 열심히 전도에 집중하였다.

참 은혜로운 4박 5일의 선교 일정이 훌쩍 지나갔다. 이제 비행기 속에서 1박을 하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은혜롭게 동역했던 팀원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통하여 얻은 은혜와 동역의 기쁨과 감사는 계속 남아 영혼 구원의 열심을 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으며 주님과 교회, 기도동역자 모두에게 감사한다.

채종표(교사, 고동부 2팀)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동1부1팀	김영은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동1부2팀	배준탁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동3부1팀	박재현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3일(월) - 3월 3일(화)	청년1부1팀	이순기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7	문애란	19	청년1부	김정례(5)	292	조은혜	3	소년부		307	서재나	3	청년2부	방승호(24)
278	황도연	19	고동부	문호식(15)	293	김종오	22	청년2부	오영준(11)	308	조서윤	1	유년부	송은희(1)
279	유병래	18	청년2부	문현욱(17)	294	고민정	2	청년1부	최종민(5)	309	이재민	1	유년부	송은희(1)
280	김효하	18	중동2부	문현욱(17)	295	조재영	10	청년1부	정재원(2)	310	송민혁	18	청년1부	송미영(18)
281	주산하	10	고동부	이훈희(15)	296	이재정	14	청년2부	김종국(14)	311	이기	25	외선부	
282	최선희	23	대학부	정재하(20)	297	김민철	16	청년2부	석사무엘(16)	312	피아	25	외선부	선우성준(24)
283	박종욱	15	고동부	김정남(22)	298	김순복	13	청년2부	문순식(13)	313	아기	25	외선부	선우성준(24)
284	이형호	14	청년2부	박준욱(14)	299	김준희	22	청년1부	이명진(14)	314	한홍주	22	청년1부	한홍준(23)
285	신성민	15	고동부	김정남(22)	300	조서현	11	청년2부	문순호(11)	315	홍종표	14	대학부	오승민(2)
286	신성민	15	고동부	김정남(22)	301	구은란	9	대학부	박민정(18)	316	김경희	8	고동부	김정현(7)
287	정승민	15	고동부	김정남(22)	302	김희희	5	대학부	박민정(18)	317	노동호	19	청년1부	이수영(19)
288	황현하	15	고동부	황 현하(14)	303	이병수	3	중동1부	김현자(13)	318	김현정	3	청년1부	안신희(9)
289	조영근	3	청년1부	윤순규(3)	304	이영분	14	청년1부	차명자(14)	319	김기진	19	고동부	김윤옥(5)
290	박미정	3	청년2부	최영희(3)	305	남지희	7	소양부	이계문(7)	320	남경미	12	청년2부	김성철(10)
291	조은아	3	소년부		306	유아림	17	청년1부	안세희(3)	321	김진미	9	청년1부	김영애(9)

* 송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청지기특별상담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칼럼

백 번 넘어져도 백한 번 일으키는 십자가의 능력

"주님! 왜 하릴 지립니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나는 항변하듯이 기도하였다. 내에게는 맞지 않는 뜻이라고, 너무나 큰 무게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만 있다."(고후 1:19)라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이 핑계 저 핑계로 감히 주님 앞에 담두심을 놓아놓으며 도망칠 곳을 찾았다. 바로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던 교만이 드러났던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기만하며 감사함 없이 억지로 서게 되었다. 입술에는 늘 주님이었지만 내 신앙의 실존에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가시관, 내 의지와 감정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기다려 주신 예수님은 이런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 "누가 나를 주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내 심령을 울렸다. 결국 말씀으로 나는 깨어졌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악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주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던 나의 굳어진 심령은 깨졌다. 오직 많은 수가성 여인과도 같은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며 나를 여가에 메시고 기뻐하셨다(눅 15:4).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사였으며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깨뜨리셨던 것이다. 늘 찬송하지만 입술에만, 지식에만 그쳤을 뿐 여전히 육에 안주하고 있는, 게으르고 가증하기 그지없는 죄인 중의 괴수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롬 8:5-6). 믿음의 삶에 느껴지는 무게는 아직도 육에 매어 있는 내 신앙, 내 의지, 내 감정에 기인된 것임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니었다. 그저 못 자국 난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고 싶었을 뿐이었다.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의 품에 안기라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 11:29).

많이 늦었지만 주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다. 내가 하려던 모든 악행을 회개하며 복음으로 돌아왔다. 십자가가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무엇이 두려우랴?'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 이제 내 삶에서 '나'는 사라졌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토기장이의 손에서 철저히 깨뜨려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할 처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어찌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죄성으로 인과 밖에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백 번 넘어져도 백한 번 일으키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니 너희를 한하신 주님의 뜻을 오직 은혜로만 감당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삼아 주소서!"



김은심
(권사, 권사회장)

교회소식

모임

1. 집사회 연합월례회
일시: 1일(오늘) 15:2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2. 권사 기도회(2지회)
일시: 3일(화) 10:00 교회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대상: 2,6,10,14,18,22 교구 시무·은퇴권사 전원필참

별 세

- 이경순 성도(김은숙 집사의 모친 · 이연규 집사의 장모, 6교구 삼천진리교) / 2월 21일 별세, 2월 23일 장례
- 김대현 티코 은회직장(김은이 다회 은회권사의 남편, 11교구 동두천구교) / 2월 22일 별세, 2월 24일 장례
- 서영향 성도(이은일 은회직장의 남편 · 서한용 성도의 부친 · 은영희 성도의 사부, 4교구 개포6교) / 2월 25일 별세, 2월 27일 장례

결혼

1. 전남국 군(조용구 성도·차하자 성도의 아들, 타고) 황은신 양
(황일선 집사·김정희 권사의 딸, 12교구) / 7일(토) 15:00, 남산
자유센터 웨딩홀 2층 자유홀

2009년 제5차 CMTC (교육과정: 3주간, 장소: 갈릴리움)

◆CMTC (선교훈련)

시 간	3월 1일(오늘)
18:15~19:15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제2강 증언교회 선교정책
시 간	3월 8일(다음 주일)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제4강 복음에 통한 틈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도회
시 간	3월 15일(주일)
18:15~19:50	직무훈련

◆CMTC(팀장훈련): 3월 6일(금)~7일(토), 충현기도원

2009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교육

우요성검공부	교과[2]: 3월 11일 - 5월 27일(12주)
오후반 230 - 400	신영어[2]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과원 307)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과원 407)
	바울사신사해골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과원 307)
· 자비반 800 - 930	바울사신사해골반-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제1교과원 507)
교사 창성부	교과[2]: 3월 11일 - 5월 24일(12주) 장소: 제1교과원 301호, 매주일 오후 300 - 430
천주대원 창성부	교과[2]: 3월 11일 - 5월 24일(12주) 장소: 바다리, 매주일 오후 300 - 430
충전대원 오후반 훈련	교과[2]: 3월 11일 - 4월 22일(8주) 장소: 제1교과원 407호, 매주일 오후 130 - 230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2~3/8)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8 (주일)
성교자/지도자	김성준/차신득	정종신/현준복	최진철/백봉선	강명구/박광식	강호식/양은수	송재호/이혜숙	강규구/최순란
주교 본 분	미 11:27-33	마 4:1-11	마 8:31-38	마 13:28-22	마 1:9-15	히 4:14-5:10	고 6:1-10
설교 주교 구	전교구	가, 18교구	가, 18교구	별, 12교구	7, 12, 21교구	교구	매회 특별

예배 망상 (3/4~3/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3/4	수요일	유체의 일과 성령의 일(산하 5:16-25) 김성환 목사	양희숙	이규찬	내가 예배 믿고자 한다(산하 찬양대)
3/4	수요일	가만히 있을지라도(출 14:10-14) 김성환 목사	안일환	박은숙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선로만 찬양대)
3/6	금요일	김성환 목사	정민권		예배실행 찬양대 / 특별 이회영 / 소프라노 조혜인
3/8	주일 I	그리스도의 시험(골 4:1-2) 유효한 목사	이정원	박종욱	(예배 전 찬양)
3/8	주일 II	그리스도의 시험(골 4:1-2) 이희석 목사	정종신	노혜원	나의 생명 되신 주 의 / 소프라노 장수영(이마누엘 찬양대 홀소리드)
3/8	주일 III	그리스도의 시험(골 4:1-2) 김기철 목사	김익현	이영수	나를 지키게 하신 주 의 / 소프라노 장수영 / 오주 / 김성철(영광회 찬양대 홀소리드)
3/8	주일 IV	그리스도의 시험(골 4:1-2) 김필경 목사	이성진	신상수	삼가게 될 줄을 믿고 의 / 트럼펫 박성민 / 트럼본 이영규(올케소프스트)
3/8	주일 V	그리스도의 시험(골 4:1-2) 정경호 목사	김기영	유혜원	내 길로 행할 줄을 믿고 의 / 소프라노 김지선 (별한찬양대 홀소리드)
3/8	주일찬양	신비한 사랑(삼 32-34) 김성환 목사	유현숙		합창으로 애성중창단 / 별한 찬양대 / 동등부

3월 총현 기도의 창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하는 사순절(25-4.11)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⑥ 사순절 특별대백기회로 주력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기도(시 16:1)를 드리게 하소서.
- ⑦ 위임교회의 영육을 건강(약하 2:9)하게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게 하소서.
- ⑧ 모든 위임회 및 부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마음과 한 뜻을(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 주시어.
- ⑨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권이 양성(딤후 2:4,6)되게 하소서.
- ⑩ 1·1·1 전도일(1:3)과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주·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⑪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레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⑫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대(마 26:7)의 은사로 존상하게 하소서.
- ⑬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이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님스플랜션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충현복지관 직원모집

1. **모임부원** 윤진기씨 세계교단(1958년 이후 출생자)으로서
1등 대령면허 소지자 및 5년 이상 대령버스 운전 경험자
2. **제출서류** 이력서(사신부착),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당회장 추천서(당회장)
3. **제출마감** 3월 6일(금) 17:00까지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552-8200(내선401)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철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일찬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항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	저녁 10:30	금요일향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2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에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 시무장로

[illegible]

■ 위임목사 김성관

호	차신숙	박만기	정전호	김익환	장 준	이희식
조	제국문화재단	여대부	제국문화재단	제국문화재단	12.2주	신원문화재단
기	김기남	하용환	안치권	장종신	12.2주	이성진
조	고교장					
인	안종현	이재영	유승일	황진성	유재진	김광규
조	고교장				12.2주	11.2주
인	박덕양	김철규	황대진	유원철	박정원	김하수
조	신원문화재단				제국문화재단	
환	배준식	최석호	박정환	박용현	이광현	
		22.2주		24.2주	9.2주	최희진
조	강소식	양소현	김근영	박준식	최종호	
	고교장				12.2주	12.2주
형	김영은	정민근	김창성	이재원	이승식	안광현
	기하문	14.2주	1.2주			20.2주
주	송재호	송재호	김성진	홍영우		
조	유석빈					
	유대부					
김	김종선	유인숙	김연식	홍은주	이옥주	김말자
조	유대부					
구	전진배	김경연	강덕철	최민수	전은희	김정자
조	12.2주	6.2주	12.2주	12.2주	12.2주	14.2주
박	박상진	김경희	이유식	류진희	한성희	임태주
조	고교장					12.2주
인	이상식	강영미	유미자	이연숙B	전희영	이배숙
	22.2주	9.2주	11.2주	12.2주	6.2주	
환	김진태	황찬온	김정호	강국원	정원일	서명환
	10.2주	24.2주	24.2주	12.2주	23.2주	13.2주
조	유대부					
장	장영	조영진	조영진			
	기하문					
조	조준민					
	유대부					
기	박광식					
조	유대부					
성	박용환					
	유대부					
성	정성					